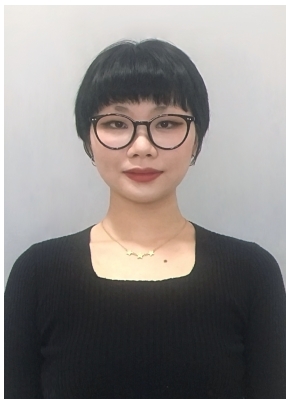


이력서

HYPER-

자신을 '넘어서' 끊임없이 개발하는 퍼블리셔 심재형입니다.

인적사항



성명 심재형(沈在炯 / Jae Hyeong Sim)
주민번호 000204 - 4561018
주소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계원대학로 36
휴대전화 010 9390 5870
이메일 wonesis24@gmail.com
홈페이지 www.hypergud.github.io

학력사항

2016.03 ~ 2018.02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졸업
2018.03 ~ 2020.02 계원예술대학교 디지털미디어디자인과 세부전공 프로그래밍 졸업
2020.03 ~ 2022.02 계원예술대학교 디지털미디어디자인학과 전공심화과정 졸업예정

수상내역

2019.07 2019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국제 공모전 특선
AR 리듬게임 "Dive-In" 프로토타입, 제안서 | 부스·AR 디자인, 웹사이트 제작 담당
2019.11 계원예술대학교 디지털미디어디자인과 졸업전시 우수작
키네틱 체험전시 "404:page not found" | 기획, 캐릭터 3D 모델링, 유니티, 웹사이트 제작 담당

기타내역

2018.08 ~ 2019.08 성적우수 장학금
2018.11 콘텐츠프로그래밍, 3D디자인 우수작 PT
2019.08 프로젝트스튜디오1 우수작 PT
2019.11 포트폴리오&PT 우수작 PT
2021.03 성적우수 장학금

스스로를 캐릭터라 생각해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저의 생활신조는 ‘스스로를 캐릭터로 생각하기’입니다. 가훈은 ‘어딜 가든 주인공이 되자’ 였으나 어릴 적 저에게 주인공은 빛나지만 부담스러운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살면서 많은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통해 꼭 모범적이고 뛰어난 능력을 가진 위인만이 주인공이 되지 않음을 보았습니다. 평범하든 괴짜이든 누구나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주인공이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스스로를 캐릭터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조를 가진 이후부터 자신의 특성과 색깔을 정의할 수 있었고 일상에서 도전하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자신에 대해 가감 없이 이해하게 되어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저를 정의해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GUD**입니다. 디자인과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고 있고 인터렉션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의 모토는 **HYPER-GUD**, 한계를 설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개발해 나가는 것입니다.

일상을 빛내던 도전으로 자신을 빛내기 시작합니다.

저의 장점은 크고 작은 도전을 즐기는 것입니다. 작은 도전은 대학교 입학 직후부터 시작했습니다. 과제로 성격에 대한 설문을 주변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 단점으로 어투에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얻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측 성 답변은 지양하고 입 모양을 좀 더 크게 하여 말하는 노력을 행했고 3년 이상 지난 지금, 명확하게 의사 전달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큰 도전은 세부전공으로 개발을 선택한 것입니다. 프로그래밍 분야에 무지한 상태로 입학했지만 주차별로 과제를 수행하며 학습했습니다. 소스 코드를 작성해 기획한 디자인을 구현하는 것에 흥미를 느꼈고 연산·반복문으로 코드를 구조화·최적화하고, 발생하는 오류 상황이나 의도치 않게 구현된 경우를 해석하며 깨달음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프로그래밍의 기초를 작은 도전으로 다져가며 이후 HTML, CSS, Java Script를 통한 웹사이트 제작, Kinect, Oculus Quest 2를 연동한 UNITY C#, Touchdesigner 프로젝트 개발, Vue.JS 스터디 등 다양한 큰 도전을 거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4년간의 멀티 인재로서의 학습, 준비되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학과라는 이름답게 포토샵, 일러스트, 인디자인, 프리미어 프로, 애프터 이펙트, 3ds max 등 많은 툴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실무 중심의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는 학과의 특성으로 기획, 디자인, 프로그래밍, 프로젝트형 수업을 모두 수강했습니다. 그리고 3년 이상 팀 프로젝트 중 개발을 담당하며 팀원들과 소통해 왔습니다. 몇 년의 경험만으로 디자인학과에서 개발 직무에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점이 퍼블리셔로서는 강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웹사이트·미디어 디자인에 대한 미적 감각을 키웠고, 기능 구현을 위한 코드의 원리도 이해하며 학습해왔습니다. 모든 분야를 아울러 팀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을 토대로 소통을 더 잘 할 수 있는, 최적화된 인재상으로 거듭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